

韓愈의 “以文爲詩”와 그 영향*

고팔미**

— <목 차> —

1. 들어가며
2. 韓愈의 “以文爲詩”에 대한 諸家の 評
3. 韓愈의 “以文爲詩” 양상
 - (1) 賦 수법의 활용
 - (2) 議論 수법의 활용
 - (3) 古文章法の 활용
 - (4) 古文句法の 활용
 - (5) 古文字法の 활용
4. 韓愈 “以文爲詩”의 영향
5. 나오며

1. 들어가며

韓愈의 시가는 중국문학사상 중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위의 확립은 그의 “以文爲詩” 창작경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는 “시가 아닌 것을 시가 되게 함(不詩爲詩)”¹⁾으로써 시가의 영역을

* 이 논문은 2009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AA005).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pmko@deu.ac.kr)

1) 趙秉文, <與李天英書>, 《休休老人滏水文集》卷19: 『不詩之爲詩.』

확대해 나갔으며, 표현수법 상에서는 시가의 산문화를 꾀한 “以文爲詩”의 예술수법으로 “唐詩의 일대 변화”²⁾를 가져오게 하였고, 宋詩의 신국면을 개척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韓愈의 “以文爲詩”는 과연 무엇인지 이에 대한 諸家の 논평을 분석하여 그 실체를 파악한 후, 韓愈가 고문의 필법을 시가에 끌어들이어 “以文爲詩”의 예술수법을 구사한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한 후, 韓愈의 以文爲詩가 중국시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2. 韓愈의 以文爲詩에 대한 諸家の 評

“以文爲詩”란 말은 북송의 陳師道(1053~1101)가 韓愈의 시를 평하면서 처음 언급했다. 陳師道는 韓愈 시의 예술 특징을 “문으로 시를 지었다(以文爲詩)”³⁾고 평했고, 이로부터 “文의 작법을 사용하여 詩를 짓는” 평어로 사용되어 역대의 많은 비평가들 사이에서 근 천여 년간 찬반 논쟁을 일으켰다.⁴⁾ 한쪽에선 “韓愈 시는 押韻한 문장일 뿐”⁵⁾이라고 비방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선 “韓愈 시는 詩의 우미함과 文의 유창함을 함께 갖추고 있어 詩文이 합일한 성공한 시”⁶⁾라고 예찬했다. 이런 양극단의 평가는 시와 문의 본질개념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전통시가에 대한 견해는 《尚書》<堯典>에 “시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詩言志)”, 《毛詩序》에 “감정이 마음에서 움직여 말로 드러난다(情動于中而形于言)”, 陸機(261~303)의 《文賦》에 “시는 정에서 나와 아름다운 문사로 표현된다(詩緣情而綺靡)”고 하여, 중국의 전통시는 기본적으로 서정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럼 文은 詩와 어떤 차이가 있나? 葛曉音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2) 葉燮, 《原詩·內篇》: 『韓愈爲唐詩之一大變.』

3) 陳師道, 《後山詩話》: 『退之以文爲詩, 子瞻以詩爲詞.』

4) 張戒, 《歲寒堂詩話》卷上: 『韓退之詩, 愛憎相半.』

5) 釋惠洪, 《冷齋夜話》: 『退之詩, 押韻之文耳.』

6) 陳寅恪, <論韓愈>: 『退之以文爲詩……既有詩之優美, 復具文之流暢, 韻散同體, 詩文合一, 不僅空前, 恐亦絕後.』

일반적으로 말해 시와 문은 각기 그 말은 바 범위를 가지고 있다. 시가가 독자에게 주는 주요한 점은 시인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감성적이며 풍부하고 다채로운 총체적인 인상, 또는 형상사유와 격정 속에서 표출된 철학적 의미이다. 성공적인 시가는 직설을 하고 의론을 하더라도, 풍부한 정신 속에 내재된 모든 함의를 가장 깊이 있게 표현하고, 그 기탁함은 말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사이에 있어야 하며, 그 귀결점은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오묘함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산문은 형상이 얼마나 선명하고 감정이 얼마나 심각하고 구상이 얼마나 교묘하던 간에, 그것이 표현한 것은 결국 하나의 명확한 목적과 의의이다.⁷⁾

葛曉音은 시와 문의 차이를 시는 시인의 정신 속에 내재된 뜻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되 그 귀결점은 오묘함이고, 산문은 글을 쓰는 명확한 목적과 의의가 뚜렷이 표현됨이라고 정의했다.

시와 문의 영역이 위와 같이 구분되는 바 韓愈의 以文爲詩에 대한 諸家の 논평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以文爲詩를 정의해 보겠다.

북송 治平년간 문인들이 모여 韓愈 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한 쪽에서는 “韓愈 시는 압운한 文일 뿐이며 결국은 시도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고 찬사를 보내며 상반된 견해를 드러낸 기록이 惠洪의 《冷齋夜話》에 실려 있다.⁸⁾ 또 북송 黃庭堅은 “杜甫는 詩法이고, 韓愈는 文法이다. 시와 문은 각기 나름대로의 체제가 있는데, 韓愈는 文으로 詩를 지었고, 杜甫는 詩로써 文을 지었으니, 공교하다 할 수 없다.”⁹⁾고 했으며, 蘇東坡는 “韓愈는 시에

7) 葛曉音, 《漢唐文學的嬗變》(北京: 北京大學出版社), 307쪽: 『一般說來, 詩文各有其職責範圍. 詩歌給與讀者的主要是詩人內心所接受的感性的, 豐富多彩的總體印象, 或者在形象思惟和激情中顯示出來的哲理意味. 成功的詩歌即使直說或議論, 也應“最深刻地表現全部豐滿的精神內在意蘊.” “使其寄託在可言不可言之間, 其指歸在可解不可解之會.” 而散文無論形象多麼鮮明, 感情多麼深沈, 構思多麼巧妙, 它所表達的總是一種明確的目的和意義.』

8) 惠洪, 《冷齋夜話》卷2: 『沈括存中, 呂惠卿吉甫, 王存正仲, 李常公擇, 治平中在館中夜談詩. 存中曰: “退之詩, 押韻之文耳, 雖健美富瞻, 終然不詩詩” 吉甫曰: “詩正當如是. 吾謂詩人未有如退之者.” 正仲是存中, 公擇是吉甫, 於是四人者交相攻, 久不決.』

9) 陳師道, 《後山詩話》: 『黃庭堅云: 杜之詩法, 韓之文法也, 詩文各有體, 韓以文爲詩, 杜以詩爲文, 故不工爾.』

대해 본래 이해하는 것이 없으나, 그 재능은 높고 뛰어나다.”¹⁰⁾고 했다. 陳師道는 “韓愈는 文으로 詩를 지었고, 蘇軾은 시로 사를 지었으니, 마치 교방 雷大使의 춤처럼 비록 천하의 기교를 다했다 하더라도 요컨대 詩의 格式은 아니다.”¹¹⁾라고 하여, 이들 모두 以文爲詩가 詩格에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南宋의 陳善은 《捫蝨新語》에서 정반대로 시와 文의 경계를 없애고 “서로 상생하는 방법”으로서 以文爲詩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시 속에 文이 있으면 사조가 유창해진다”는 견해를 밝혔다.¹²⁾ 이런 긍정적 인식은 趙秉文(1159~1232)의 〈與李天英書〉에도, 韓愈가 “시에다 고문의 표현수법을 끌어들여 시의 영역을 확대시켰다”¹³⁾고 공감했다. 근인 陳寅恪(1890~1969)은 한층 더하여 韓愈의 以文爲詩가 시의 영역을 확대시켜 “시문의 합일을 이룬 성공”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그 가치가 “공전절후”하다고 칭찬했다.¹⁴⁾ 이러한 평가 이후 근인 학자들은 以文爲詩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韓愈의 以文爲詩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을 언급한 평도 있다. 宋의 張耒(1052~1112)는 韓愈가 일반적 音節句式인 4-3에서 3-4로 句脈을 변화시켰다고 했다.¹⁵⁾ 淸의 趙翼(1724~1797)은 張耒가 말한 변화구식을 創句法이라고 하며, 韓愈가 5언시의 正格인 2-3 句法을 벗어나 1-4의 새로운 句法을 창조했고, 7언시의 4-3 정격에서 3-4로 변화시켜, 詩法 뿐 아니라 句法도 창조했다고 했다.¹⁶⁾ 그리고 韓愈의 또 다른 創

10) 陳師道, 《後山詩話》: 『子美之詩, 退之之文, 魯公之書, 皆集大成者也, …退之於詩, 本無解處, 以才高而好爾。』

11) 陳師道, 《後山詩話》: 『退之以文爲詩, 子瞻以詩爲詞, 如教坊雷大使之舞, 雖極天下之工, 要非本色。』

12) 仇兆鰲, 《杜詩補傳》卷下: 『〈捫蝨新語〉云, 韓以文爲詩, 杜以詩爲文, 世傳以爲戲. 然文中要自有詩, 詩中要自有文, 亦相生法也. 文中有詩, 則句語精確, 詩中有文, 則詞調流暢。』

13) 趙秉文, 〈與李天英書〉, 《休休老人滏水文集》卷19: 『杜陵知詩之爲詩, 未知不詩之爲詩. 而韓愈又以古文之渾浩, 溢而爲詩, 然後古文之變盡矣。』

14) 陳寅恪, 《論韓愈》: 『退之之詩詞旨聲韻無不諧當, 既有詩之優美, 復具文之流暢, 韻散同體, 詩文合一, 不僅空前, 恐亦絕後。』

15) 張耒, 《明道雜誌》: 『退之乃變句脈, 以上三下四. 如‘落以斧引以繩微’·‘雖欲悔舌不可捫’之類是也。』

16) 趙翼, 《甌北詩話》卷3: 『昌黎不但創格, 又創句法, 〈路旁堠〉云: ‘千以高山遮, 萬以遠水隔.’ 此創句之佳者. 凡七言多上四字相連, 而下三字足之. 乃〈送區宏〉

格으로 포장 나열하는 賦體의 서술수법을 시에 운용하여 새로운 詩格을 열어 創新을 시도했다고 했다.¹⁷⁾ 또 淸의 方東樹(1772~1851)는 韓愈의 칠언고시가 시상 전개와 배치를 古文章法처럼 구사했다고 했다.¹⁸⁾ 또 顧嗣立(1669~1722)은 韓愈의〈謝自然〉시가 전부 의론으로 이뤄졌으며 〈原道〉·〈佛骨表〉에 버금간다고 평했다.¹⁹⁾

이상의 단편적인 언급을 벗어나 최근 몇몇 논문에서는 이를 총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程千帆의 〈韓愈以文爲詩說〉에는 以文爲詩를 개괄하여 “첫째는 고문장법과 구법으로 시를 쓴 것이고, 둘째는 고문에서 주로 쓰는 의론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²⁰⁾라고 했다. 閻琦의 《韓詩論稿》에는 더 구체적으로 以文爲詩 특징을 “첫째 賦體의 특징이 많다. 둘째 古文章法으로 시를 짓는다. 셋째 古文句法으로 시를 짓는다. 넷째 議論을 시로 표현한다. 다섯째 시에다 산문체재를 많이 쓴다.”²¹⁾고 했다. 王運熙의 《唐代五大文豪》에는 以文爲詩의 특징을 “첫째 고문의 章法·句法·虛辭 등을 시가 창작에 운용하여 시가를 산문화시킨다. 둘째 대량의 의론을 시 속에 넣어 의론으로 시를 짓는다. 셋째 辭賦·鋪張·雕繪의 수법을 시가 창작에 운용한다.”²²⁾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언

云: ‘落以斧引以繩微’, 又云: ‘子去矣時若發機’, 〈陸渾山火〉云: ‘溺厥邑囚之崑崙’, 則上三字相連, 而下以四字足之。』

17) 趙翼, 《甌北詩話》卷3: 『自沈·宋創爲律詩後, 詩格已無不備. 至昌黎又嶄新開闢, 務爲前人所未有. 如〈南山詩〉內鋪列春夏秋冬四時之景, 〈月蝕詩〉內亦鋪列東西南北四方之神, 〈譴瘡鬼〉詩內亦數醫師, 灸師, 詛師, 符師是也. 又如〈南山詩〉運用數十‘或’字; 〈雙鳥詩〉運用‘不停兩鳥鳴’四句; 〈雜詩〉四首內一首運用五‘鳴’字; 〈贈別元十八詩〉運用四‘何’字; 皆有意出奇, 別增一格。』

18) 方東樹, 《昭昧詹言》卷11: 『詩莫難于七古. ……觀韓·歐·蘇三家, 章法剪裁, 純以古文章法行之, 所以獨步千古。』

19) 錢仲聯, 《韓昌黎詩繫年集釋》, 34쪽: 『顧嗣立曰: ……此篇全以議論作詩, 辭嚴義正, 明目張膽, 〈原道〉·〈佛骨表〉之亞也。』

20) 程千帆, 〈韓愈以文爲詩說〉, 195쪽: 『以文爲詩……概括起來, 大體上有兩個方面, 一方面是古文的章法, 另一方面 是以在古文中常見的議論入詩。』

21) 閻琦, 《韓詩論稿》, 113~119쪽: 『我們從五個方面看看以文爲詩在韓愈詩的表現, 并對其優劣利弊略作分析. 第一方面: 多賦體…, 第二方面: 以古文章法爲詩…, 第三方面: 以古文句法爲詩…, 第四方面: 以議論爲詩…, 第五方面: 詩多兼散文體裁。』

22) 王運熙等著, 《唐代五大文豪》, 129~131쪽: 『以文爲詩作爲一種藝術手段, 它的具體內容大略有如下三個方面: 第一, 把古文的章法·句法·虛辭等運用于

급을 총괄하여 以文爲詩를 정리한 사람은 羅聯添이다. 그의〈論韓愈幾個問題〉에는

최근 학자들이 전인들의 언급을 귀납하여 구체적으로 풀어서 以文爲詩라 확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 句式이 산문화된 것이다: 對句를 사용하지 않고, 대량의 虛字를 사용한다. 2) 문장의 맥락을 시에 넣어 쓴다. 3) 고문의 章法과 句法으로 시를 쓴다. 4) 의론을 시로 표현한다. 5) 시에 賦體가 많다. 6) 시가 산문 체제를 겸한다.²³⁾

이 정리는 구체적이긴 하나 2)와 3)의 의미가 6)과 비슷하여 구분하기 힘들고 중복되는 느낌을 준다.

이상을 토대로 본인은 以文爲詩의 특징과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았다. 첫째, 賦體의 수법인 鋪陳 排比를 활용하여 새로운 詩格을 열었다. 둘째, 議論을 담아 시가영역을 확대시켰다. 셋째, 古文章法을 활용하여 산문범주에 속했던 체재나 표현수법을 시가에 끌어들었다. 넷째, 古文句法을 활용하여 시가의 對稱·節奏·韻律 등의 규칙을 파괴시켰다. 다섯째, 古文字法을 활용하여 시가언어상의 변혁을 꾀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를 以文爲詩의 특징으로 정의하고, 다음 장에서는 韓愈가 체현한 以文爲詩의 예술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 韓愈의 以文爲詩 양상

(1) 賦 수법의 활용

賦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詩 六義에서 比興과 함께 존재하는 作詩方法과 또 하나는 兩漢부터 유행했던 문학체제이다. 賦를 “필

詩歌寫作, 使詩歌散文化…, 第二, 把大量議論成分引進詩中, 以議論爲詩…, 第三, 把辭賦鋪張雕繪的手段運用于詩歌寫作.』

23) 羅聯添, 〈論韓愈古文幾個問題〉, 353~354쪽: 『近今學者, 有歸納前人看法, 引申闡術, 認定以文爲詩, 包括下列各端. (1) 句式散文化: 不用對偶句, 使用大量虛字. (2) 以文章氣脈入詩: 指出韓詩布局構思, 有文章脈絡, 舉〈孟東野失子詩〉爲例, 其布局如賦體相似, 相當于〈進學解〉·〈送窮文〉類文字. (3) 以古文章法·句法爲詩. (4) 以議論入詩. (5) 詩多賦體. (6) 詩兼散文體裁.』

쳐 늘어놓는 것”²⁴⁾, “그 일을 직접 써서 말을 빌어 사물을 표현해 내는 것”²⁵⁾, “그 일을 펼쳐 늘어놓고 그것을 직접 말하는 것”²⁶⁾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위 두 개념이 거의 비슷하지만, 韓愈 시가에서 賦體 수법의 활용을 살펴보는 데는 이 둘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작시방법인 賦는 직접 서술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말로, 比興과 함께 《詩經》에서부터 활용되었다. 漢代 鄭玄은 “賦는 펼친다는 뜻이며, 政敎의 선악을 직접 펼쳐 늘어놓는 것이다.”²⁷⁾라 했고, 梁 劉勰은 “賦란 늘어놓는 것으로, 문채를 깔고 서술하여 밖으로는 사물을 형용하고 안으로는 사상과 감정을 묘사하는 것이다.”²⁸⁾라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직접 서술 방법인 賦는 대단히 중요한 작법이며, 특히 始終 鋪陳을 주로 하여含蓄의 情致가 적게 마련인 敍事詩에서 그 효능을 발휘하기 좋은 작법이다. 중국의 전통고전시가는 서정시 위주로 발전하였고 서사시는 唐 이전 문인들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韓愈 시에는 순수 장편서사시가 약 50여수 가량이나 된다. 이처럼 많은 분량의 서사시는 韓愈가 賦 수법을 많이 썼다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文體로서의 賦는 文이면서 詩를 겸한 半詩半文의 형태를 띠며, 주요 특징이 鋪陳排比이고, 지나친 과장과 나열로 편쪽은 길고 내용은 공허한 경우가 많다. 韓愈 시에도 漢賦처럼 지나친 과장과 나열만 일삼은 시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南山詩>를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장편은 역시 騷賦로부터 변화돼 나온 것이다.”²⁹⁾

“한유 <남산>시는 賦體이다. 賦는 본래 六義의 하나인데, 이 시는 <子虛><上林>賦派이다.”³⁰⁾

“<남산>시는 무릇 <京><都>賦體를 시에다 옮긴 것이다.”³¹⁾

24) 摯虞, 《文章流別論》: 『賦者, 敷陳之稱也.』

25) 鍾嶸, 《詩品·上品序》: 『直書其事, 寓言寫物, 賦也.』

26) 朱熹, 《詩集傳》: 『敷陳其事而直言之.』

27) 鄭玄, 《毛詩正義·關雎》: 『賦之言鋪, 直鋪陳之政敎善惡.』

28) 劉勰, 《文心雕龍·詮賦》: 『賦鋪也, 鋪采摛文, 體物寫志也.』

29) 錢仲聯, 앞의 책, 460쪽: 『顧嗣立曰: 此等長篇, 亦從騷賦化出.』

30) 위의 책, 460쪽: 『方世舉曰: 退之<南山>, 賦體. 賦本六義之一, 而此則<子虛><上林>賦派.』

31) 위의 책, 461쪽: 『方東樹曰: <南山>蓋以京都賦體而移之于詩也.』

“한나라 사람들은 부를 짓는데 지나치게 과장하여 새기고 그렸으며
 ……한유의<남산>시는 漢賦의 지나치게 과장하여 새기고 그리는 기
 교를 흡수하였다.”³²⁾

이외에도 150韻에 이르는 장편 <城南聯句>시, 韓愈와 孟郊가 주고받은 聯句詩, 그리고 36韻의 <古寒詩>, 또 40韻의 <岳陽樓別竇司直>등이 모두 漢賦와 흡사하다. 이런 시들은 사물의 형상을 본뜨는 데만 그 공을 다해 전편에서 詩情을 찾아보기 어렵다. 비평가들이 韓愈 시를 “격이 시 같지 않다(格不近詩)”, “순전히 부를 사용했다(純用賦)”, “압운한 문이다(押韻之文)”라고 비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시들을 가리키는 말로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韓愈 시 전체로 볼 때 작시방법인 賦수법으로 표현된 시가 문학체제인 賦體의 詩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 유의해서 韓愈 시를 평해야 할 것이다.

(2) 議論수법의 활용

중국의 전통시가는 서정시가 주류를 이루므로, 시 속에 의론을 넣은 의론시는 산문적 요소를 지닌다는 점에서 중국 전통시가에 부합하는가를 가지고 시론가들 사이에 주요 논쟁이 되었다. 嚴羽(1180~1264)의 《滄浪詩話》는 宋代 시인들이 “의론으로 시를 짓는다”³³⁾고 비평하였고, 明의 屠隆(1542~1605)은 “宋人は 대부분 시로 의론하기를 좋아하는데, 시로 의론하려면 어찌 문으로 짓지 않고 시로 지었는가?”³⁴⁾라고 더욱 노골화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 시에는 의론한 시들이 있어 왔다. 沈德潛(1673~1769)은 《說詩晬語》에서 의론이 시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긍정하며 《詩經》과 杜甫의 시를 예로 제시하였다.³⁵⁾ 반면

32) 위의 책, 461쪽: 『徐震《評釋》曰: 漢人作賦, 鋪張雕繪 ……昌黎<南山>, 攝漢賦鋪張雕繪之工.』

33) 嚴羽, 《滄浪詩話·詩辨》: 『近代諸公乃作奇特解會, 遂以文字爲詩, 以才學爲詩, 以議論爲詩.』

34) 屠隆, 《由拳集·文論》卷23: 『宋人多好以詩議論, 夫以詩議論, 則奚不爲文以爲詩哉?』

35) 沈德潛, 《說詩晬語》卷下: 『人謂詩主性情, 不主議論, 似也, 而亦不盡然. 試思二雅中何處無議論? 杜老古詩中, <奉先詠懷>·<北征>·<八哀>諸作, 近體中

역대 중국의 문체 분류에서는 의론을 산문의 영역으로 분류하여³⁶⁾ 의론을 산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인식하게 했다. 사실 시에 의론을 넣어 도리를 말한다는 것은 시가의 서정성이나 음악성과 조화를 이루어내기 어렵다. 沈德潛은 시 속에 의론을 운용할 때는 “의론은 情韻을 띄고 행해져야 하며 존스러워서는 안 된다”³⁷⁾고 하여, 의론은 반드시 시의 정감과 융합되어야만 예술성을 살리게 된다고 했다.

以文爲詩는 산문요소를 시에 끌어들이는 예술수법이므로 以文爲詩한 시에서는 의론 성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론을 넣어서 좋은지 아닌지, 또 의론을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것인지 이다. 이를 위해 먼저 韓愈 시에서 의론이 두드러진 <謝自然詩>를 보자. 이 시는 어려서 출가한 여도사 謝自然이 대낮에 수천 명이 목격하는 가운데 승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韓愈는 미신의 허황됨을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이 68구의 장편 시를 지었다.³⁸⁾ 그는 謝自然이 출가하여 승천하기까지의 일과 미신으로 폐해 본 고사들을 제시한 후, 마지막 20구에 教誨의 목적으로 순전히 의론을 폈다.³⁹⁾ 본래 도가의 미신을 배척하려는 의도에서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론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程學恂은 <韓詩臆說>에서 이 시를 “운이 있는 문장일 뿐이니, 읽지 않고 두어도 된다.”⁴⁰⁾고 말했을 정도로 이 시의 의론은 실패했다 할 수 있다. 그럼 다시 20구로 이루어진 <汴泗交流贈張仆射>를 보자. 이 시의 중심은 말타고 격구하는 모습을

<蜀相>·<詠懷>·<諸葛>諸作, 純乎議論.』

36) 宋 陳德秀의 <文章正宗>, 梁 劉勰의 <文心雕龍>, 明 吳訥의 <文章辨體序說>, 明 徐師曾의 <文體明辨序說>, 清 姚鼐의 <古文辭類纂> 등에서는 의론을 산문의 문체로 분류하였다.

37) 沈德潛, <說詩晬語>卷下: 『但議論須帶情韻以行, 勿近僧父面目耳.』

38) 錢仲聯, 앞의 책, 33쪽: 『楊慎<升菴詩話>曰: 謝自然女仙, 白日飛昇, 當時盛傳其事至長安, 韓昌黎作謝自然詩紀其跡甚著, 蓋亦得于傳聞也.』

39) <謝自然詩>: 『人生處萬類, 知識最爲賢. 奈何不自信, 反欲從物遷. 往者不可悔, 孤魂抱深冤. 來者猶可誠, 余言豈空言. 人生有常理, 男女各有倫. 寒衣及飢食, 在紡織耕耘. 下以保子孫, 上以奉君親. 苟異於此道, 皆爲棄其身. 嗚呼彼寒女, 永託異物群. 感傷遂成詩, 味者宜書紳.』

40) 錢仲聯, 위의 책, 34쪽: 『程學恂曰: 韓集中有此及<豐陵行>等篇, 皆涉敍論直致, 乃有韻之文也, 可置不讀.』

鋪張 묘사한 것이지만, 시를 쓴 동기는 張建封(張仆射)에게 諫言하는 데 있었다. 당시 貞元15년은 彭義절도사 吳少誠이 淮西지역을 점령하고 중앙정부에 대항하여 군사반란을 일으켰는데도, 寧武절도사인 張建封은 도리어 擊毬에 빠져 이들을 토벌하자는 舉事는 듣지도 않았다. 韓愈는 시 전편에서 말 다루는 솜씨와 격구의 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후 결말 4구에서 “이것이 정말 전쟁 연습이고 놀이가 아니라면, 어찌 營中에 편히 앉아 좋은 대책 도모함만 하겠는가? 지금 세상에 충신을 얻을 수 없으니, 나리의 말들 부질없이 달리게 하지 말고, 모름지기 역적들이나 죽이게 하소서.”⁴¹⁾라는 의론으로 끝을 맺었다. 朱彝尊은 이 4구의 의론을 “올바른 뜻이 들어갔다”⁴²⁾고 했다. 만약 이 의론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말 타며 擊毬하는 行樂圖이며, 韓愈가 번진할거에 반대하던 처음의 충정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의론은 넣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시에서의 의론은 形象과 언어를 손상시키지 않았기에 성공했다 할 수 있다.

시에서 성공적인 의론을 퍼려면 형상화된 언어를 써야 한다. 韓愈의 시에는 형상화된 언어의 의론이 많이 있다. 그중 진부한 언어를 탈피하고 독창적인 시어로 형상의 곡진한 묘를 드러낸 시 두 수를 예로 들어 보겠다. <薦士>시는 당시 재상이던 鄭餘慶에게 친구 孟郊를 추천한 시인데, 孟郊를 추천하는 언어가 이미 형상화된 시어로 의론을 대신하고 있어⁴³⁾ 전혀 의론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또 유명한 <調張適>시 역시 의론시지만 전혀 의론시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 시는 당시 李白을 찬양하고 杜甫를 비방하는 잘못된 견해에 대한 일침을 가하고, 李杜의 시가성취를 평하면서 李杜를 향한 존경심을 형상화된 언어로 표현했는데, 처음 4구에서만 의론이라는 느낌이 들고, 나머지 36구는 전부 형상화된 언어가 의론을 대신했다.⁴⁴⁾ 이 시들처럼 의론을 형상화시

41) <汴泗交流贈張仆射>: 『此誠習戰非爲劇, 豈若安坐行良圖. 當今忠臣不可得, 公馬莫走須殺賊.』

42) 錢仲聯, 위의 책, 105쪽: 『朱彝尊曰: 入正意.』

43) <薦士>: 『有窮者孟郊, 受才實雄驚. 冥觀洞古今, 象外逐幽好. 橫空盤硬語, 妥帖力排奡. 敷柔肆紆餘, 奮猛卷海濤. 榮華肖天秀, 捷疾逾響報.』

44) <調張籍>: 『李杜文章在, 光焰萬丈長. 不知羣兒愚, 那用故謗傷? ……(中略)……我願生兩翅, 捕逐出八荒. 精神忽交通, 百怪入我腸. 刺手拔鯨牙, 舉瓢酌天漿. 騰身跨汗漫, 不著織女襄. ……』

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형상화된 의론은 이미 외관상 의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以議論爲詩”라고 질책하는 것은 이런 의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시에서의 의론은 간단히 凝煉해야 하며, 긴 의론은 아무리 장중해도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 시의 서정성과 음악미를 파괴하게 된다. 위에 예로 든 <謝自然詩>는 후반 20구가 전부 의론으로 이루어져 실패한 의론이지만, <汴泗交流贈張仝謝>는 시의 마지막 4구에서만 짧게 의론을 펴 성공한 의론이라 할 수 있다. 다시 韓愈의 시 중 가장 잘 알려진 <山石>을 보자. 이 시는 韓愈가 친구들과 놀다 저녁에 山寺에서 유숙 후 지은 시이다. 절에 머물고 산을 유람하며 보고 느낀 일들을 적은 후, 마지막 4구에서 “인생이 이와 같으면 스스로 즐길 만한데, 어찌 하필 속박되어 남에게 고삐 잡히랴? 슬프다! 우리 무리 두 세 사람들, 어이하여 늙어가며 되돌아가지 않는가?”⁴⁵⁾라는 의론으로 끝을 맺었다.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 의론은 간결하게 응축되어 더욱 마음에 와 닿고 공허하지 않다. 의론은 시 전체의 정신을 드러내는 초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 전체의 사상이 모이는 응결점이 되며, 의론이 없다면 그 시의 本旨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만약 위 <汴泗交流贈張仝射>시의 끝 4구에 의론이 없다면 그야말로 한 편의 騎馬擊毬行樂圖가 될 뿐이고, 또 <山石>의 끝 4구에도 의론이 없다면 陶然自樂하는 한 편의 遊記가 될 뿐이다. 韓愈는 위의 시처럼 의론을 맨 마지막에 두기도 하고, <送張道士>시처럼 첫4구를 의론으로 전개하기도 했으며, 또 <桃源圖>처럼 첫2구와 맨 끝2구에 수미쌍관으로 의론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했다.

물론 의론은 감정이 사무친 후 자연스럽게 토로해야 호소력이 있고 감화력이 생기지, 억제로 견강부회하면 상처만 남게 된다. 그 예로 유명한 <左遷至藍關示姪孫湘>시를 보자. 元和 14년 <論佛骨表>를 상소했다潮州로 좌천가는 도중 쓴 시로, 정의와 백성을 위해 상소하다 좌천됐기 때문에 비통한 심정이 복받쳐 쏟아낸 시이다. 頷聯 2구가 의론인데 시 전체의 처량한 분위기와 강열한 감정이 하나로 융합돼 의론이라는 것을

45) <山石>: 『人生如此自可樂，豈必局束爲人羈？嗟哉吾黨二三子，安得至老不更歸？』

거의 알 수 없다.⁴⁶⁾ 이는 의론을 억지로 끌어 붙인 것이 아니라 감정이 사무친 후 자연스럽게 분출됐기 때문이다. 의론이 예술적인 감염력을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널리 傳誦되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以文爲詩에서 의론은 시가를 산문화시키는 중요한 인소가 되는데 문제는 의론을 어떻게 펴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예술적인 면에서 韓愈 시의 의론은 득이 되는 것도 있고 실이 되는 것도 있다.

(3) 古文章法の 활용

以文爲詩의 특징으로 古文章法을 활용했다는 말은 詩想의 전개와 배치를 古文전개방법에 따랐다는 의미이다. 고문의 대가인 韓愈는 주로 플롯 전개가 다채로운 서사장편고시에서 고문장법을 운영했다. 근체시처럼 편폭이 짧은 시가에서는 장법이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敘事·抒情·議論이 서로 결합된 장편고시에서는 章法상의 편집과 배치가 중요하다. 이에 관해 方東樹는 《昭昧詹言》에서 7언 고시와 고문장법은 상통하므로 고문가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으며, 韓愈 7언 고시는 “순전히 고문의 법으로 지어졌기에 천고에 독보적이 되었다”고 평했다.⁴⁷⁾ 사실 한유 시 413편중에는 절반 이상인 235수가 고시이며 그 중에서도 뛰어난 작품들은 대부분 7언 고시에 많다. 이들 7언 고시 중 <八月十五夜贈張功曹>시를 예로 들어 고문장법의 활용을 살펴보자.

작은 구름 사방으로 퍼지더니 은하는 없어지고, 맑은 바람 불어오니
달빛은 물결에 흐른다. 넓은 모래벌 강물도 조용하고 소리도 그림자
도 끊겼는데, 한 잔 술 권하노니 그대여 노래를 부르라. 그대 노래 소
리는 쓰고 가사 또한 괴롭거니, 다 듣지 못하고서 눈물이 비 오듯.
洞庭湖는 하늘에 이었고 九疑山은 높았는데, 동정호의 교룡은 나고

46) <左遷至藍關示姪遜湘>: 『一封朝奏九重天, 夕貶潮州路八千. 欲爲聖明除弊事, 肯將衰朽惜殘年? 雲橫秦嶺家何在? 雪擁藍關馬不前. 知汝遠來應有意, 好收吾骨瘴江邊.』

47) 方東樹, 《昭昧詹言》卷9: 『詩莫難于七古, 七古以才氣爲主, 縱橫變化, 亦由天受, 不可強能. 杜公·太白, 天地元氣, 直與《史記》相埒. 二千年來, 只此二人. 其次須解古文者而後能爲之. 觀韓歐蘇三家, 章法剪裁, 純以古文之法行之, 所以獨步千古. 南宋以後, 古文之傳絕, 七言古詩遂無大家.』

들고 구의산의 원숭이들 슬피도 운다. 구사일생 고생하며 임지에 다 다르니, 깊숙한 거처는 적막하여 도망쳐 숨어온 듯. 방 밖에 나가려니 뱀이 무섭고 밥을 먹자니 독약이 두려운데, 바다 기운 스며들어 냄새는 비리비리. 어저께 州府에서 큰 복을 쳤거니, 새 임금 등극하여 어진 신하 모으리라. 사면하는 문서는 하루에도 만 리를 달리면서, 죽을 죄 지은 놈도 모두 다 살리네. 좌천자도 귀양간 자도 모두 다 돌아오니, 흉을 쏘고 때를 벗겨 조정 반열 깨끗하리. 州府에서 올린 명단 관찰사가 억제하니, 불우한 신세들은 겨우 옮겨 江陵일세. 판사의 벼슬 낮다 말하지도 못하리니, 잘못하면 땅에 눌려 태장 맞고 쫓겨나지. 함께 왔던 친구들은 모두 올라가는데, 서울 길 험난하여 따라잡기 어렵구나.

그대 노래 쉬어라 내 노래 들을지니, 내 노래는 그대와 크게 다르리. 일년 중 밝은 달 오늘밤이 제일이라. 인생이란 그저 운명에 따르는 것 일진데. 있는 술 마시잖고 밝은 달은 어이하리?⁴⁸⁾

永貞 元年(貞元21년, 805) 중추절에 지은 시이다. 2년 전 韓愈는 德宗에게 상소를 올렸다가 동년배인 張署(張功曹)와 함께 강남으로 폄직됐다. 順宗이 즉위하자 대사면이 이루어지는데 두 사람은 京師로 못하고 같은 임지인 江陵府의 參軍으로 옮겨오게 됐다. 중추절에 만난 두 사람은 밝은 달 아래서 술 마시며 자신들의 불우함을 개탄하며 위로하였고 韓愈는 이 시를 지어 張署에게 주었다.

첫째 단락은 제1구에서 제6구까지로, 처음 3구는 寫景이고, 제4·5·6구는 전환을 위해 잠시 멈추며 다음 단락을 미리 개괄 예고했다.

둘째 단락은 제7구부터 제24구까지로, 張署가 부르는 노래가사이다. 쓸쓸하고 애절하게 써내려간 18구에 달하는 긴 가사는 바로 이 시의 중심내용이다. 유배지에서의 고생, 대사면을 통해 조정에 다시 등용될 것이라는 기대, 기대가 무너지고 고작 지방관으로 옮겨오면서 겪은 실

48) <八月十五夜贈張功曹>: 『織雲四卷天無河, 清風吹空月舒波. 沙平水息聲影絕, 一杯相屬君當歌. 君歌聲酸辭且苦, 不能聽終淚如雨. 洞庭連天九疑高, 蛟龍出沒猩鼯號. 十生九死到官所, 幽居默默如藏逃. 海氣濕蟄熏腥臊, 下床畏蛇食畏藥. 昨日州前搥大鼓, 嗣皇繼聖登夔臯. 赦書一日行千里, 罪從大辟皆除死. 遷者追迴流者還, 滌瑕蕩垢清朝班. 州家申名使家抑, 坎坷只得移荊蠻. 判司卑官不堪說, 未免捶楚塵埃間. 同時流輩多上道, 天路幽險難追攀. 君歌且休聽我歌, 我歌今如君殊科. 一年明月今宵多, 人生由命非由他, 有酒不飲奈明何?』

망감 등을 곡절하게 묘사하여 한편의 敍事 산문을 읽는 듯하다. 비록 張署의 노래가사지만 韓愈 자신의 이야기이며 심기이다.

셋째 단락은 마지막 다섯 구로, 중추절 밝은 달밤에 즐겁게 술을 대하는 韓愈의 인생태도를 서술하며 議論으로 끝맺는다.

이 시는 寫景으로 詩想을 일으키고 敍事로 곡절하게 전개했으며 議論으로 마무리해 詩想의 배치가 서사체 산문작법 같아, 方東樹는 “한 편의 고문장법”⁴⁹⁾이라고 했다. 또한 산문의 필법을 사용하면서도 시로써의 여운을 잃지 않은 것은 치밀하게 시상을 배치한 덕분으로, 程學恂은 이 시를 “一唱三歎할 만한 여운이 있다”⁵⁰⁾고 극찬했다.

7언 고시는 격식이 비교적 자유롭고 속박이 적으며 용량이 커 형식 면에서 고문과 비슷한 곳이 많다. 누구보다도 고문에 뛰어난 韓愈로서는 7언 고시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독창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특히 고문에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건묘사나 인물형상화·象物摹寫 등의 장점을 시에서도 잘 표현해 내고 있다. 예를 들면 7언 고시의 <雉帶箭>이나 <汴泗交流贈張仆射>는 사건묘사에 뛰어난 작품이고, <寄盧仝>·<贈崔立之評事>는 인물형상을 그리는데 뛰어났으며, <鄭群贈簞>·<石鼓歌>·<陸渾山火> 등의 시는 象物摹寫에 뛰어나다고 평한다. 그러나 고문장법으로 쓰인 韓愈의 시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南山詩>같은 시는 실패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04구나 되는 장편 시에다 남산의 방위·기세·주위 사방의 환경·사계절의 경물변화와 남산을 멀리서 본 경치·가까이에서 본 경치·산에 오르는 여정·처음 산에 올라와서 본 것·높은 곳에 오른 소견……등을 번잡하게 서술하며, 형용묘사나 장법구성에서 모두 고문필법을 능숙하게 운용했지만 지나친 鋪陳기교에 치우쳐 詩情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漢賦를 연상시킨다.

결과적으로 고문장법을 잘 활용하면 문의 장점을 살리고 시의 단점을 피해 詩體의 개척과 예술수법의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韓愈는 이를 잘 활용했다.

49) 錢仲聯, 앞의 책, 263쪽: 『方東樹曰: 一篇古文章法.』

50) 錢仲聯, 위의 책, 263쪽: 『程學恂曰: 正所謂一唱三歎有遺音者矣.』

(4) 古文句法の 활용

章法이 詩想의 배치나 짜임새에 관한 방법이라면, 句法은 시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詩句의 활용과 안배에 대한 방법이다.

韓愈가 운용한 句法에는 對句와 律句를 피하고 單句 행문을 만들거나, 시구의 음절을 파괴하여 句脈을 변화시키거나, 장단이 가지런하지 않은 장단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문화 시켰다.

먼저 韓愈가 對句와 율구를 고의로 피하고 산문구의 단구행문을 사용한 예를 보자. <此日足可惜贈張籍>시는 총 140구로 이루어진 장편인데 필력이 일방적으로 나가면서도 한 개의 對偶도 없다. 애타게 그리던 張籍을 겨우 하루 동안 만난 감회를 거침없이 써내려갔기 때문에 문장 쓰듯 의미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주의를 끄는 것은 “此日足可惜, 此酒不足嘗”구와 “淮之水舒舒, 楚山直叢叢”구가 고의로 대구를 피했다는 것이다. 强幼安은 《唐子西文錄》에서 “韓愈는 고시를 지을 때 일부러 對를 짓는 것을 피했다”⁵¹⁾고 했고, 程千帆은 “이처럼 故意로 對仗을 피한 것은 확실히 以文爲詩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⁵²⁾ 韓愈는 한편에 수십韻에 이르는 장편 시에서도 집요하게 대구나 율구를 피해 古拙雄驚한 고문의 풍격을 드러냈는데, 駢偶를 피하고 律句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單句行文을 적극 활용했다. 單句를 사용하면 시의 리듬과 구식에서 벗어나 산문화된 느낌을 가지게 되므로 以文爲詩가 되는 것이다. 施補華는 韓愈가 7언 고시에서 단구의 행문을 사용하여 필력이 웅건하다고 언급했는데,⁵³⁾ 이는 대구의 짜임새 있는 구식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유롭고 힘 있는 경지를 추구했다는 말이다. 韓愈의 70 수 가량의 7언 고시 중에는 오직 <桃源圖>·<遊靑龍寺贈崔大補闕>·<贈崔立之評事> 3편만 우연히 율구가 섞여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대구를 피했으며, 앞의 <山石>과 <八月十五夜贈張功曹>처럼 7언 고시의 명작도

51) 錢仲聯, 위의 책, 96쪽: 『强幼安《唐子西文錄》: 韓退之作古詩, 有故避屬對者, “淮之水舒舒, 楚山直叢叢”是也.』

52) 程千帆, <韓愈以文爲詩說>, 197쪽: 『韓愈在古詩中, 有的地方故意避免對仗, 如<此日足可惜一首贈張籍>中“淮之水舒舒, 楚山直叢叢”二句, 强幼安《唐子西文錄》就指出這是故避屬對, 而這種故避, 顯然與以文爲詩有關.』

53) 施補華, 《峴傭說詩》: 『退之七古, 多用單行. 退之筆力雄勤.』

시 전체에 對偶를 하지 않았다.

또한 韓愈는 시구의 일반적인 음절구식을 깨뜨리고 구맥을 변화시켰다. 전통시가의 구식을 보면 5언은 2·3이 정격이고 7언은 4·3이 정격이다.⁵⁴⁾ 이와 같은 정격을 따르지 않고 음절 구식을 바꾸면 돌출된 느낌이 든다. 宋의 張耒는 韓愈가 시구의 句式을 따르지 않고 고문처럼 句脈을 변화시켰으며, 그 예로 “落以斧引而纏徽”와 “雖欲悔舌不可捫”의 句式이 3·4라고 했다.⁵⁵⁾ 또 趙翼도 韓愈는 詩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句法도 창조했으며 그 예로 <路旁堠>시의 “千以高山遮, 萬以遠水隔”는 1·4구식을 썼고, <送區宏>시의 “落以斧引而纏徽”와 “子去矣時若發機”, 그리고 <陸渾山火>시의 “溺厥邑囚之崑崙” 등은 3·4구식을 써서 정격을 변화시켜 새롭게 句法을 창조했다고 했다.⁵⁶⁾ 韓愈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종종 의도적으로 다양한 변구를 사용했다. 5언시에서는 정격인 2·3구식을 따르지 않고 1·4구식이나 4·1구식, 또는 3·2구식을 따르기도 하였고, 7언시에서는 정격인 4·3구식을 3·4구식, 5·2구식, 2·5구식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시켜 사용했다. 그 예를 보면,

- 1·4구식 或連若相從, 或蹙若相鬪. <南山詩>
牛不見服箱, 斗不挹州漿. <三星行>
- 4·1구식 繁華榮慕節, 父母慈愛損. <謝自然詩>
- 3·2구식 知音者誠希 <知音者誠希>
有窮者孟郊 <薦士>
- 3·4구식 嗟我道不能自肥 <送區弘南歸>
子去矣時若發機 <送區弘南歸>
- 5·2구식 母從子走者爲誰 <汴州亂2首>

54) 胡震亨, 《唐音癸籤》: 『五言九以上二下三爲脈, 七言句以上四下三爲脈, 其恒也.』

55) 張耒, 《明道雜志》: 『韓退之窮文之變, 每不循軌轍. ……而退之乃變句脈, 以上三下四. 如‘落以斧引而纏徽’ ‘雖欲悔舌不可捫’之類是也. ……而已脫詩人常格矣.』

56) 趙翼, 《歐北詩話》卷3: 『昌黎不但創格, 又創句法, <路旁堠>云: “千以高山遮, 萬以遠水隔” 此創句之佳者. 凡七言多上四字相連, 而下三字足之. 乃<送區宏>云: “落以斧引而纏徽”, 又云: “子去矣時若發機”. <陸渾山火>云: “溺厥邑囚之崑崙” 則上三字相連, 而下以四字足之.』

2 · 5구식 神僊雖然有傳說, 智者盡知其妄矣. <誰氏子>
放縱是誰之過歟 <寄盧仝>

이와 같은 變句의 운용으로 시의 리듬감을 파괴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결국 시에 산문적인 특색을 지니게 했다.

韓愈는 또 장단구를 사용하여 산문화시켰다. <利劍>의 『憶! 劍與我俱變化歸黃泉.』구는 1언과 9언이 각각 한 구를 이루고 있으며, <奉酬盧給事雲夫>시의 『上界眞人足仙府, 嶽如散仙鞭笞鸞鳳終日相追陪!』구는 7언과 13언으로 이루어져 마치 산문을 연상시킨다. 또 <河之水二首寄子姪老成>시는 其一과 其二 모두 각각 3자, 4자, 5자, 7자, 9자의 장단구를 섞어가며 산문형식을 운용했는데, 평이한 시어로 황하물이 흘러가듯 답답하게 혈육의 정을 드러내 詩三百의 여운이 느껴지는 걸작이라는 평을 듣는다.⁵⁷⁾ 잡언체의 가장 돌출한 시는 <嗟哉董生行>이다. 첫 구부터 마지막 38구까지 3언~13언의 장단구가 이리저리 뒤섞여 운율·절주·대칭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했지만, 시가언어의 절주감과 음악미가 파괴되어 전형적인 以文爲詩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古文句法은 웅건한 필력을 과시하는데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구식을 엇갈리게 배열하면 정취가 살아나고 표현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부자연스러워 시어의 절주감과 음악미가 파괴된다.

(5) 古文字法の 활용

字法이란 어휘의 운용으로, 여기에는 시인의 사상·감성·재능·편호와 습관 등 심미의식이 반영되어 시의 풍격을 형성하고 예술성을 나타내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韓愈는 시의 字法에서도 以文爲詩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는 당시의 방언 또는 口語와 俚俗字를 대량 사용하여 시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사실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57) 錢仲聯, 위의 책, 138쪽: 『程學恂曰: 看來只淡淡寫相思之意, 絕不著深切語, 而骨肉係屬之深, 已覺痛入心脾, 二首剴切深厚, 眞得《詩三百》餘意, 在唐詩中自是絕作.』

했다는 것이다. <八月十五夜贈張功曹> “州家申名使家仰”의 ‘州家’ ‘使家’는 백성들이 ‘州官’과 ‘관찰사’를 부르는 당시 방언이며⁵⁸⁾, <送陸暢歸江南> “舉舉江南子”의 ‘舉舉’는 ‘생동거지가 단정하고 아름답다’는 당시 구어이고,⁵⁹⁾ <南溪始泛> “上去無得得”의 ‘得得’도 ‘특별한 장소(特地)’라는 방언이다.⁶⁰⁾ 또 <瀧吏>시의 ‘底’·‘儂’·‘罷’는 모두 못지방 방언으로 이러한 방언은 사실감을 강화시켰다.⁶¹⁾ 이외에도 전아한 전통시가에서는 감히 쓰지 못하는 ‘髮禿’·‘齒牙缺’·‘鼻又塞’·‘呀豁落者’·‘得暴’·‘我須齧’⁶²⁾ 등과 같은 속된 표현들도 거리낌 없이 구사하여 시의 제재를 풍부하게 하고 이목을 일신시켰으며, 이와 같은 어투는 시의 산문화를 이루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는 經典語를 인용하여 신선감을 불어 넣고 문장 같은 느낌을 들게 했다는 것이다. 韓愈 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古體字·怪體字·生僻字 등 詰僻聲牙한 시어들이며, 이는 대부분 先秦兩漢의 典籍들에서 가져온 것으로 韓愈의 413수 시속에 수 없이 많이 찾을 수 있다. 韓愈는 박식한 학문 덕분에 대량의 경전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여, 진부함과 평범함에서 벗어나 색다른 느낌을 주는 새로운 시세계를 개척하고, 또 고문처럼 고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여 시가 산문화를 꾀했다.

셋째는 虛字의 多用인데, 이는 以文爲詩의 중요한 인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시는 정련되고 함축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허자사용을 절제하는데, 韓愈는 허자사용의 풍부함과 빈도가 전인을 월등히 뛰어 넘는다. 뿐만 아니라 ‘之’·‘者’·‘乎’·‘也’ 등의 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조 자조차도 꺼리지 않고, 모든 문언 허자를 다 운용하면서도 그 운용 솜씨 또한 가히 일가를 이룬다고 할 만하다.⁶³⁾ ‘哉’·‘矣’·‘耳’ 등의 어조

58) 止水 選注, 《韓愈詩選》, 64쪽: 『州家, 使家 : 皆當時方言, 猶云 “州官” “使官”.』

59) 錢仲聯, 위의 책, 829쪽: 『唐人以舉止端麗爲舉舉.』

60) 錢仲聯, 위의 책, 1281쪽: 『得得, 唐人方言, 猶特地也.』

61) 錢仲聯, 위의 책, 1113쪽: 『方世舉注; 底, 何也. 古樂府<子野歌>“郎喚儂底爲?” 又<歡聞變歌>“底爲守空池”, <懊儂歌>“約誓底言者”, <西烏野飛>“持底喚歡來?”, 唐詩家多用底事, 猶云何事也. 蓋俗謂何等爲甚底, 而吳音急速, 故轉語如此. 蹉詩如儂字·罷字皆吳音也.』

62) <寄崔二十六立之>“我雖未耄老, 髮禿骨力羸”, <赴江陵途中>“自從齒牙缺” “因疾鼻又索”, <贈劉師復>“我今牙豁落者多”, <病中贈張十八>“中虛得暴下”

자로 압운하기도 하고, 한 聯에 두 개의 허자를 쓰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한 구에 두 세 개의 허자를 사용하기도 했다.⁶⁴⁾ 錢鍾書는 《談藝錄》에서 韓愈는 허자 사용의 빈번함과 기교의 뛰어남에서 따를 사람이 없고,⁶⁵⁾ 특히 ‘而我’를 잘 활용하여 “큰 바위를 굴리고 세찬 물살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다.⁶⁶⁾ 이처럼 허자운용의 뛰어난 기교는 시가의 기세와 절주에 많은 힘을 불어 넣고, 특히 평담한 散化句가 영활하게 변화도록 해 준다.

4. 韓愈 以文爲詩의 영향

“以文爲詩”라는 예술수법은 사실 韓愈에 의해 처음 출현한 것이 아니라 《시경》과 《초사》에서부터 의론화·산문화 경향이 보이기 시작했고, 한대와 위진남북조시기의 몇몇 작품들에서도 나타나지만, 본격적으로 以文爲詩의 성취를 보인 작가는 陶淵明(365~427)이다.⁶⁷⁾ 陶淵明의 以文爲詩 예술수법은 韓愈의 <秋懷>·<晚菊>·<南溪始泛>·<江漢>·<雖云廣>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⁶⁸⁾ 그 후 중국시가의 집대성자

63) 《詩學淺說》(臺北:學海出版社, 1977), 186쪽:『作文靠語助字來表達意, 已經不是好辦法. 作詩更不相宜. 不但語助字像之·乎·者·也等類不宜用, 卽虛字也以少用爲是.』

64) <馬厭穀>:『已焉哉, 嗟嗟乎鄙夫.』<李花贈張十一署>:『祇今四十已如此, 後日更老誰論哉.』<誰氏子>:『神仙雖然有傳說, 知者盡知其妄矣.』<詠雪贈張籍>:『惟子能諳耳, 諸人得語哉.』<此日足可惜>:『淮之水舒舒, 楚山直叢叢.』<歸彭城>:『訐謨者誰子, 無乃失所宜.』<月蝕詩>:『念此日月者, 爲天之眼睛.』<同冠峽>:『行矣且無然, 蓋棺事乃了.』<琴操>其七<拘幽操>:『目窈窕兮, 其凝其盲.』

65) 錢鍾書 著, 《談藝錄》:『而無昌黎之神通大力, 充類至盡, 窮態極媚.』

66) 錢鍾書, 위의 책:『昌黎亦善用而字, 尤善用而我字, ……昌黎五言如<苦寒>之‘而我於此時, 恩光何由沾’, <食曲河驛>之‘而我抱重罪, 孑孑萬里’, <寄李大夫>之‘而我竄逐者, 龍鐘初得歸’, <祖席>之‘淮南悲木落, 而我亦傷秋’. 胥有轉巨石挽狂瀾之力.』

67) 吳小如, <宋詩漫談>, 《宋詩綜論叢編》(高雄:麗文文化, 1990), 7쪽:『就魏晉南北朝這一段階的詩人的作品而論, 陶淵明的成就最高. 偏偏陶詩中議論最多, 散文詩的詩句也最多.』

68) 錢鍾書, 위의 책:『昌黎詩如<秋懷><晚菊><南溪始泛><江漢><雖云廣>等, 未嘗不師法陶公.』

인 杜甫에 이르자 시의 영역이 확대되고 격이 바뀌어, 천하의 일을 모두 기록할 수 있는 以文爲詩의 예술수법이 전면적으로 부각됐고, 이런 풍격은 韓愈와 蘇軾에 이르러 더욱 확대됐다.⁶⁹⁾

전통시의 발전이 정점에 이르렀던 성당의 문단은 安史의 난을 거치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변화했으며, 韓愈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文以載道”의 구호를 내걸고 고문운동을 주도하여 문단 개혁에 앞장섰다. 그는 문장뿐 아니라 시 창작에도 힘써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으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以文爲詩이다. 韓愈의 以文爲詩 예술수법은 이후 송대 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송대 문학의 신국면을 개척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陳寅恪은 “韓愈는 唐代의 문화 학술상 앞의 시대를 잇고 뒷시대를 이어 옛것을 돌려 새롭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⁷⁰⁾이라고 그 문학사적 역할을 언급했다.

韓愈 以文爲詩의 영향은 북송초기까지는 고문의 쇠락과 변문의 흥성으로 시단은 만당체 시풍과 서곤체 시가 유행하여 以文爲詩한 시를 찾기 어려웠다. 북송 중기에 이르러 歐陽修(1007~1072)가 중심이 된 시 문혁신의 단행으로 송시는 새로운 시풍을 열어갔고, 거기에는 韓愈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송대 嚴羽는 “歐陽修는 韓愈의 고시를 배웠다”⁷¹⁾고 했고, 王士禎(1634~1711)은 “歐陽修 七言長句의 높은 경지는 직접 韓愈를 추종한 것이다”⁷²⁾라고 했으며, 劉熙載는 “歐陽修는 韓愈에게서 나왔다”⁷³⁾고 했다. 북송 중기의 문학운동은 시와 문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고문운동의 산문적 이론과 창작특징이 시가영역으로 스며들었으며 以文爲詩한 시가 창작되는 기풍이 형성되었다. 張高評은 이에 대해 “송대 학술은 整合을 숭상하여 많은 예술가와 이론가들이 예술을 전체적으로 사고하고 연구한 것이 많았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69) 李東陽, 《懷麓堂詩話》: 『漢魏以前, 詩格簡古, 世間一切細事長語, 皆著不得, 其勢必久而漸窮, 賴杜詩一出, 乃稍爲開擴, 庶幾可盡天下之情事. 韓一衍之, 於是情與事無不可盡, 而其爲格, 亦漸蘊矣.』

70) 陳寅恪, 〈論韓愈〉: 『退之者, 唐代文化學術史上承先開後轉舊爲新關捩點之人物也』

71) 嚴羽, 《滄浪詩話·詩辨》: 『歐陽公學韓退之古詩』

72) 王士禎, 《古詩選凡例》: 『七言長句, 高處直追昌黎.』

73) 劉熙載, 《藝概·詩概》: 『歐陽永叔出于昌黎.』

시가와 고문이 서로 침투하고 서로 영향을 주어 시론과 문론이 서로 통하는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⁷⁴⁾라고 분석했다. 시와 문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相通融合되어 나온 것이 바로 以文爲詩이며, 이런 풍격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송시의 특징을 형성했던 것이다.

歐陽修와 더불어 북송 시가혁신을 주도한 梅堯臣(1002~1060)과 蘇舜欽(1008~1048) 역시 韓愈의 영향을 받아 以文爲詩의 표현방식을 운용하여 송시의 기풍을 개척하였다. 청의 葉燮(1627~1703)은 《原詩》에서 “韓愈의 시는 唐詩의 일대 변화이다. 그의 시는 힘이 크고 생각이 웅대하며 우뚝이 뻗어나와 비조가 되고 있다. 송대의 蘇舜欽·梅堯臣·歐陽修·蘇軾·王安石·黃庭堅 모두 韓愈가 발단이 되었고, 그들에 의하여 극성을 이루었다 할 수 있다.”⁷⁵⁾고 했다. 韓愈는 모방만 일삼던 시폐를 바로잡아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여, 唐詩의 일대변화를 일으켰고, 宋詩의 비조가 되어 송시 전체의 시풍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蘇軾(1036~1101)은 “韓愈는 시에서 본래 이해한 것이 없으나 그 재주는 높고 뛰어나다”⁷⁶⁾고 완곡하게 부정했지만, “以文爲詩는 韓愈에서 비롯되었고, 蘇軾에 이르러 그 문사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면모를 개척하여 일대의 대관을 이루었다.”⁷⁷⁾고 趙翼(1727~1824)은 《歐北詩話》에서 밝히고 있다. 蘇軾의 以文爲詩가 韓愈에게 영향 받아 새로운 국면을 열어 크게 꽃피워 중국 전통시를 극점에 올려놓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말 方東樹(1772~1851)의 《昭昧瞻言》에 보면, 唐의 李白·杜甫·韓愈와 宋의 蘇軾·黃庭堅은 오언고시의 예술 풍격상 五大宗主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⁷⁸⁾ 또 “남송이래, 시인들은 李白·杜甫·韓愈·蘇軾의

74) 張高評, 《宋詩之傳承與開拓》(臺北: 文史哲出版社, 1990): 『宋代學術, 崇尚整合, 許多藝術家與理論家大多將藝術作爲一整體來思考研究, ……其最著者, 詩歌與古文, 二者相互滲透, 彼此借鏡, 於是產生詩論與文論相通的現象.』

75) 葉燮, 《原詩·內篇》上: 『韓愈爲唐詩之一大變, 其力大, 其思雄, 堀起特爲鼻祖. 宋之蘇梅歐蘇王黃, 皆愈爲之發其端, 可謂極盛.』

76) 陳師道, 《後山詩話》: 『退之於詩, 本無解處, 以才高而好爾.』

77) 趙翼, 《歐北詩話》卷5: 『以文爲詩, 自昌黎始, 至東坡益大放厥詞, 別個生面, 成一大之大觀.』

경계를 벗어난 사람이 없으니, 이들보다 더 위로 향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이 네 분만한 사람은 없었다.”⁷⁹⁾고 하면서, “하나 둘 깊이 배우면 李白이나 蘇軾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 杜甫나 韓愈까지는 쫓아가다 그치게 된다.”⁸⁰⁾고 하여, 杜甫와 韓愈의 경계가 가장 높아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없다고 했다. 施補華의 《峴傭說詩》와 李詳의 《韓詩萃精序》에도 韓愈 시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근인 陳寅恪은 《論韓詩》에서 “韓愈의 以文爲詩는 韓愈의 문학상의 성공이며 중국문학사상에서도 흥미있는 안건”⁸¹⁾이라고 전제한 후, “韓愈는 산문으로 시를 지으면서도 성운이 화해하지 않는 게 없어서, 시의 아름다움에다 다시 산문의 유창함까지 갖추고 있어, 운문과 산문이 한 몸이 되고, 시와 문장이 하나로 합해지니, 이는 중국문학사상 전무후무한 일”⁸²⁾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처럼 韓愈의 以文爲詩는 송시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중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나오며

본 논문에서 韓愈의 以文爲詩에 대한 제가의 논평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그 실체를 파악한 결과 以文爲詩의 예술수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효과가 있다고 정의했다. 첫째, 賦體의 수법인 鋪陳 排比를 활용하여 새로운 詩格을 열었다. 둘째, 議論을 담아 시가영역을 확대시켰다. 셋째, 古文章法을 활용하여 산문범주에 속했던 제재나 표현수법을 시가에 끌어들이었다. 넷째, 古文句法을 활용하여 시가의 對稱·節奏·韻律 등의 규칙을 파괴시켰다. 다섯째, 古文字法을 활용하여 시가언어상의 변혁을 꾀

78) 方東樹, 《昭昧瞻言》卷1: 『…自此以外, 千餘年詩歌, 諸大歷·長慶·溫李·西昆諸小乘剽記不論, 其餘名家, 無不爲李·杜·韓·蘇·黃五家嗣法派者.』

79) 위의 책: 『“南宋以來, 詩家無有出李, 杜, 韓, 蘇四公境界, 更不向上求, 故亦無復有如四公者.”』

80) 위의 책: 『一二深學, 卽能避李·蘇, 亦止追尋到杜·韓而止.』

81) 陳寅恪, <論韓愈>: 『退之以文爲詩, 誠是確論; 然此爲退之文學上之成功, 亦吾國文學史有趣之公案也.』

82) 위의 책: 『退之之詩詞旨聲韻無不諧當, 既有詩之優美, 復具文之流暢, 韻散同體, 詩文合一, 不僅空前, 恐亦絕後.』

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를 以文爲詩의 특징으로 정의하고, 韓愈가 以文爲詩의 예술수법을 구사한 구체적인 양상을 賦 수법의 활용 · 議論 수법의 활용 · 古文章法の 활용 · 古文句法の 활용 · 古文字法の 활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賦 수법의 활용은 작시방법의 賦와 문학체제의 賦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작시방법인 賦는 直敘方法이므로 서사시에 적합한 작법인데 중국전통시는 서정시 위주로 발전하여 문인들에서는 서사시를 거의 찾을 수 없으나, 韓愈 시에는 대량의 장편서사시가 있어 賦수법을 많이 활용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또 문체인 賦는 鋪陳排比하며 과장나열하는 것이 특징인데, 韓愈 시에는 <南山詩>처럼 지나치게 과장나열한 시가 많아 “순전이 부를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議論은 시가를 산문화시키는 중요한 인소이고, 시에서의 의론은 간결정련되고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술적인 면에서 韓愈 시의 의론은 득이 되는 것도 있고 실이 되는 것도 있었다.

古文章法이란 詩想의 전개와 배치를 고문의 전개방법에 따르는 것이다. 대고문가인 韓愈는 古文章法으로 문의 장점을 살리고 시의 단점을 피해 시체의 개척과 예술수법의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古文句法이란 시구의 활용과 안배를 고문처럼 하는 것이다. 韓愈는 對句와 律句를 피하여 單行을 만들거나, 시구의 음절을 파괴하여 구맥을 변화시키거나, 장단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문화시켰다.

古文字法이란 어휘의 운용인데, 韓愈는 시어로는 부적합한 방언 · 구어 · 俚俗字 · 經典語 · 허자 등을 다용하여, 새로운 시세계를 개척하고 이목을 일신시켰다.

이와 같은 韓愈의 以文爲詩는 북송 중기 歐陽修의 시문혁신에 많은 영향을 미쳐 송시의 새로운 시풍을 열게 했으며, 歐陽修와 더불어 북송 시가혁신을 주도한 梅堯臣과 蘇舜欽 역시 韓愈의 以文爲詩 표현방식을 운용해 송시기풍을 개척했다. 청의 葉燮은 《原詩》에서 “韓愈의 시는 唐詩의 일대 변화이다. 그의 시는 힘이 크고 생각이 웅대하며 우뚝이 빼어나와 비조가 되고 있다. 송대의 蘇舜欽 · 梅堯臣 · 歐陽修 · 蘇軾 · 王安石 · 黃庭堅 모두 韓愈가 발단이 되었고, 그들에 의하여 극성을 이루었다 할 수 있다.”⁸³⁾고 말해, 이로부터 韓愈가 송시의 비조가 되어 송

시 전체의 시풍에 영향을 주었고 중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錢仲聯集釋,《韓昌黎詩繫年集釋》,臺北:學海出版社,1984.
吳文治,《韓愈資料彙編》,臺北:學海出版社,1984.
錢鍾書,《談藝錄》,北京:中華書局,1984.
劉熙載,《藝概》,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
胡震亨,《唐音癸籤》,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1.
方東樹,《昭昧詹言》,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4.
丁福保,《清詩話》,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
郭紹虞,《清詩話續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3.
何文煥,《歷代詩話》,北京:中華書局,1981.
丁福保,《歷代詩話續編》,北京:中華書局,1983.
鐘 嶸, 임동석 역주,《詩品》,서울:도서출판학고방,2003.
劉 勰, 王利器 校證,《文心雕龍校證》,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0.
郭紹虞 校釋, 김해명 역,《滄浪詩話》,서울:소명출판,2001.
袁行霈·孟二冬·丁放,《中國詩學通論》,合肥:安徽教育出版社,1994.
陳伯海,《唐詩學引論》,上海:東方出版中心,1988.
陳寅恪,《金明館叢稿初編》,北京:三聯書店,2001.
葛曉音,《漢唐文學的嬗變》,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5.
劉 寧,《唐宋之際詩歌演變研究》,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社,2002.
郭 鵬,《詩心與文道》,北京:北京語言大學出版社,2003.
張高評,《宋詩之傳承與開拓》,臺北:文史哲出版社,民國79.
王運熙 等著,《唐代五大文豪》,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6.
孟二冬,《中唐詩歌之開拓與新變》,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8.
閻 琦,《韓詩論稿》,西安:陝西人民出版社,1984.

83) 葉燮,《原詩·內篇》上:『韓愈爲唐詩之一大變,其力大,其思雄,堀起特爲鼻祖。宋之蘇梅歐蘇王黃,皆愈爲之發其端,可謂極盛。』

羅聯添,〈論韓愈古文幾個問題〉,《唐代文學研究》第3集,1992.

程千帆,〈以文爲詩辨〉,《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9.

王 力,《漢語詩律學》,上海:上海教育出版社,1978.

止 水 選註,《韓愈詩選》,香港:三聯書局,1980.

- ,《詩學淺說》,臺北:學海出版社,民國66.

<中文提要>

韓愈的詩歌在中國文學史上占有很重要的地位, 這種地位的確立與他“以文爲詩”創作傾向息息相關。他以“不詩爲詩”擴大了詩歌題材範圍, 促進了詩歌的散文化。在表現手法上融入了散文的清新筆調, 表現出“以文爲詩”的創作傾向, 使其詩爲“唐詩之一大變”, 這對宋詩及宋以後的詩產生很大的影響。本文分析對韓愈以文爲詩的諸家評而把握其實體之後, 揭示他表現出的以文爲詩的具體樣相, 並考察這對宋詩及宋以後的詩產生的影響。

他體現的以文爲詩手法有以賦體手法爲詩、以議論爲詩、以古文章法爲詩、以古文句法爲詩、以古文字法爲詩。

所謂韓詩多賦體的賦有兩個意義, 一個是一種直接敘事的作詩手法, 另一個則是一種基本定型了的文學體裁。韓詩多賦體是爲韓詩多敘事詩所決定了的。說韓愈以文爲詩“純用賦”的, 就是指文學體裁的賦。

以文爲詩採用屬於散文範疇的議論, 韓詩中常有議論。詩中的議論, 常常爲詩的內容所決定而不得不發。韓詩的議論有失有得。

韓愈以古文章法爲詩, 主要表現是以古文謀篇、布局、結構之法來運營詩歌。除了此外, 還表現在他將古文善於描繪事件、刻畫人物、模寫物象的長處用在詩里。

韓愈以古文句法爲詩, 有幾個突出的表現: 就是屏除對句、律句, 打亂詩的一般音節, 使用長短句等。

韓愈古文字法上的以文爲詩的特徵是多用當時方言、口語、俚俗語, 使用經典語, 多用虛詞。這些都是韓愈詩歌言語上變革的表現, 不僅令人耳目一新, 同時也豐富了詩歌題材。

韓愈以文爲詩創作傾向給予宋詩以重大影響。北宋中期以歐陽修爲中心形成了宋詩的新氣象。歐陽修、梅堯臣、蘇舜欽採用韓愈的古文理論創作以

文为诗的作品，而提唱古文运动和诗歌革新。北宋後期苏轼和黄庭坚用和以前不同的新方式作诗，开拓以文为诗的领域。

关键词：韩愈 以文为诗 赋法 议论 古文章法
古文句法 古文字法

투 고 일 : 2011.2.25
심 사 일 : 2011.3.10~4.10
게재확정일 : 2011.4.20